

문화탐방

제주도 당(堂) 이름과 문화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오 창 명

1. 서설

우리나라 각 고을이나 마을, 동네 등에는 서낭신을 모신 곳이나 집인 서낭당이 있고, 무당이 신을 모시고 굿을 하는 곳이나 집인 당집(堂-) 또는 굿 당(-堂)이 있다.

서낭신은 성황신(城隍神)이 변한 말인데, 옛말로로는 ‘선황’ 성황·성황수’라고 했다. 『정속언해(이원주 교수본)』(1518)를 보면, 한자어 土神(토신)을 우리말로 ‘선황’이라 번역하고, 『동문유해』와 『한청문감』을 보면, 한자어 산로신(山路神)을 ‘성황’ 또는 ‘성황수’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태조실록은 물론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등에서 城隍堂(성황당), 城隍神(성황신), 城隍神廟(성황신묘)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삼국사기』에서도 城隍(성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성황신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마을의 수호신으로 받들었던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에서는 마을의 신을 모신 당을 본향(本鄉) 또는 본향당(本鄉堂)이라 부른다.

세쇼개 스승이 간대로 비세원호미 미츄미 심햐야 선황이 바드며 향도 무서 비에 가 놀며

=世俗巫禱伊狂妄尤甚爲也 祠土神爲於 結會躍爲也 迎舡馬之娛臥

〈『정속언해(이원주 교수본)』(1518) 20〉

山路神 성황수 〈『동문유해』(1748) 하:11〉

山路神 城隍神……留謝儀 성황에 거다 〈『한청문감』(1779) 9:6〉



제주시 봉개동의 동회천동에 있는 세미하로산당의 전경

『삼국사기』 권32 ‘잡지 제1’을 보면, 중국의 『후한서(後漢書)』와 『북사(北史)』, 『양서(梁書)』, 『당서(唐書)』 등의 고구려전(高句麗傳)이나 고려전(高麗傳) 등을 인용한 기사에서, 고구려는 귀신에게 제사 드리기를 좋아하고, 음사(淫祠)가 많았다고 했다. 이때의 음사(淫祠)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신당 또는 당집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음사(淫祠)는 부정한 귀신 또는 내력이 올바르지 않은 귀신 따위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나 집을 이르는 말이다.

『후한서』에 이르기를, “고구려에서는 귀신·사직·영성에 제사 드리기를 좋아한다. 10월에는 하늘에 제사 드리면서 크게 모이는데, 이름을 동맹이라 한다. 그 나라 동쪽에 대혈이 있어 이를 수신이라 하는데, 역시 10월에 신을 맞이하여 제사 드린다.”라고 했다. / 後漢書云, 高句麗好祀鬼神社稷零星, 以十月祭天大會, 名曰東盟, 其國東有大穴, 號祕神, 亦以十月迎而祭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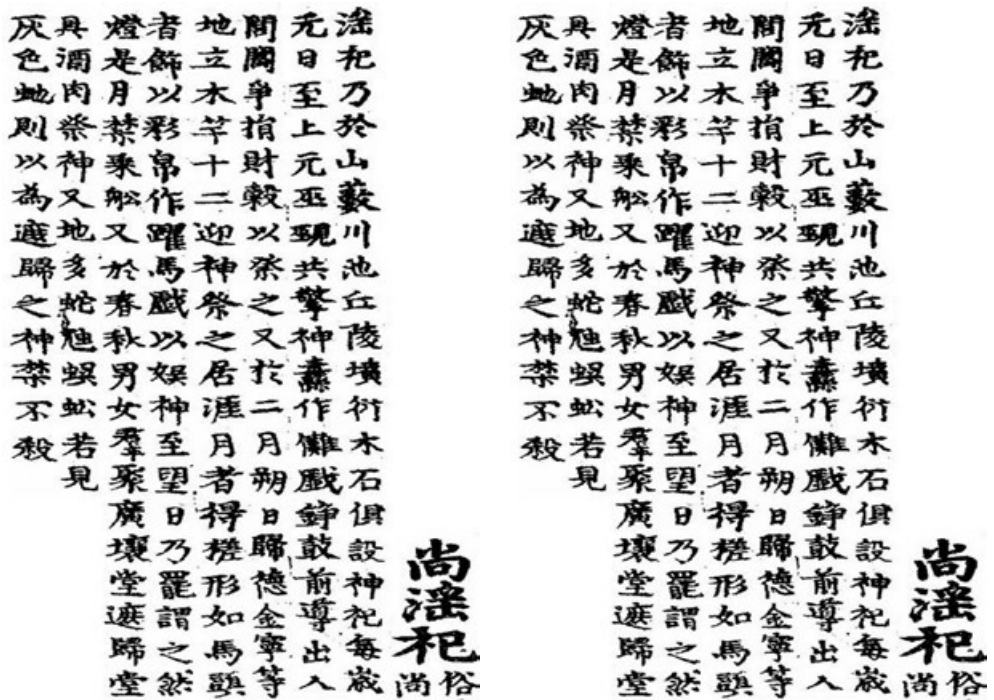
『북사』에 이르기를, “고구려는 항상 10월이면 하늘에 제사 드리고, 음사가 많다. 신묘가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부여신이라 하여 나무를 새겨 부인의 상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고등신이라 하여, 이를 시조라 하고 부여신의 아들이

라 한다. 모두 관서를 설치하고 사람을 보내어 지키게 하니 대개 하백녀와 주몽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 北史云, 高句麗常以十月祭天, 多淫祠, 有神廟二所, 一曰夫餘神, 刻木作婦人像, 二曰高登神, 云是始祖夫餘神之子, 並置官司, 遣人守護, 蓋河伯女朱蒙云.

『양서』에 이르기를, “고구려는 왕이 거처하는 곳 좌편에 큰 집을 짓고 귀신을 제사 드린다. 겨울에는 영성과 사직에 제사 드린다.”라고 했다. / 梁書云, 高句麗於所居之左, 立大屋祭鬼神, 冬祠零星社稷

『당서』에 이르기를, “고구려 풍속에는 음사가 많고, 영성과 태양신, 기자가한 등의 신에 제사 드린다. 나라(서울) 좌편에 큰 구멍이 있는데 신수라고 한다. 매년 10월에 왕이 모두 친히 제사 드린다.”라고 했다. / 唐書云, 高句麗俗多淫祠, 祀靈星及日箕子可汗等神, 國左有大穴曰神窰, 每十月王皆自祭.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제주목, 풍속' 조를 보면, 제주도에서도 음사(淫祀)를 숭상하는 풍속이 있다고 했다. 이 음사(淫祀)를 숭상하는 곳이 바로 당(堂)이다. 이 기록에서는 광양당(廣壤堂)과 차귀당(遮歸堂)이 나오고, 귀덕이나 김녕, 애월 등에서도 음사(淫祀)를 지낸다고 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 권38, 제주목, 풍속' 조의 상음사(尚淫祀)와 '사묘(祀廟) 조의 사(祀)

부정한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숭상한다 【풍속에 부정한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숭상하여, 산과 숲, 내와 못, 높고 낮은 언덕, 나무와 돌 따위에 모두 신에 대한 제사를 베풀다. 매년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날까지 남녀 심방이 신의 기를 함께 받들고 경을 읽고 귀신 쫓는 놀이를 한다. 이때 징과 북이 앞에서 인도하며 동네를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다투어 재물과 곡식을 내어 제사한다. 또 2월 초하룻날 귀덕과 김녕 등지에서는 나무 장대 열둘을 세워 신을 맞아 제사한다. 애월개에 사는 자는 나무 등걸 형상의 말머리 같은 것을 구해서 채색 비단으로 꾸며 말이 뛰는 놀이를 하여 신을 즐겁게 하다가 보름날이 되면 그만두는데, 그것을 연등이라고 한다. 이 달에는 배타는 것을 금한다. 또 봄가을로 남녀가 광양당과 차귀당에 무리로 모여 술과 고기를 갖추어 신에게 제사한다. 또 그 땅에 뱀·독사·지네가 많은데 만일 회색뱀을 보면 차귀의 신이라 하여 죽이지 말라고 금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의 전통 신앙은 무당(신방)·심방과 당(堂)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의 전통 신앙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고, 아예 무시하려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당과 관련된 무당의 굿 문화에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민속 문화가 녹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당’은 한자말 堂(당)에서 온 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청(大廳: 한옥에서, 몸체의 방과 방 사이에 있는 큰 마루)을 뜻하는 말로도 쓰이고, 글방(예전에, 한문을 사사료이 가르치던 곳)을 뜻하는 말로도 쓰이고, 당집(서낭당, 국사당 따위와 같이 신을 모셔 두는 집)을 뜻하는 말로도 쓰이고, 큰 절의 문 앞에, 그 절의 이름난 승려를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세우는 기 또는 부처나 보살 앞에 세우는 기의 하나를 뜻하는 말로도 쓰인다.

그러나 제춧말에서 ‘당(堂)’이라 하면, 보통 마을 사람들의 여러 일을 지켜주는 신이나 신령을 모셔 놓은 곳, 또는 그러한 신이나 신령이 거처한다고 여기는 곳, 신이나 신령, 당신 따위를 모셔놓고 제차(祭次)를 지내는 곳이나 집 따위를 일컫는다.

곧 제춧말에서 당(堂)은 표준어의 신당(新堂)이나 당집, 굿당 등에 대응하는 말로 쓰인다. 이때의 당은 인위적으로 조성한 곳도 있고, 자연적으로 추위나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막을 수 있는 곳도 있다. 또한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노출된 바위나 나무 따위를 그대로 활용한 곳도 있다.

이 글에서는 인위적으로 조성되었든, 자연을 이용했든, 예로부터 제주 사람들이 비넌하거나 기원했던 당, 또는 신이 거처한다고 하는 곳, 또는 신에게 제차(祭次)를

드리는 곳 따위를 이르는 당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2. 제주도 당 이름의 분류

제주도의 당 이름은 당에 모신 신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결혼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 구분해서 부르는 경우가 있다. 가령 하르방신을 모시는 당이면 하르방당이라 하고, 할망신을 모시는 당이면 할망당이라 한다. 결혼한 여자를 모시는 당이면 각시당, 결혼하지 않는 여자, 곧 처녀를 모시는 당이면 처녀당이라 한다. 이들 당 이름에 각 성바지를 덧붙이는 경우도 있다. 곧 송씨 할망을 모시는 당이면 송씨 할망당, 양씨 할망을 모시는 당이면 양씨 할망당이라 한다.

한편 불교가 들어와서 영향을 미친 신을 모시는 경우도 있다. 가령 미륵보살(彌勒菩薩)을 모시는 당이면 미륵당(彌勒堂)이라 한다.

모시는 날에 따라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 매 일뤼(일례: 음력 7일, 17일, 27일)마다 모시는 당이면 일뤼당(일렛당)이라 하고, 매 유히레(음력 8일, 18일, 28일)마다 모시는 당이면 유히레당(유히렛당)이라 한다.



서귀포시 호근동에 있는 유히레당

또한 열두 지지(地支)를 상징하는 동물들의 날에 따라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 가령 쉼날[丑日]에 다니는 당이라면 쉼당 또는 축일당(丑日堂)이라 하고, 무날[午日]에 다니는 당이라면 무당 또는 오당(午堂), 오일당(午日堂)이라 한다. 개날[戌日]에 다니는 당이면 개당 또는 술일당(戌日堂)이라 한다.

또한 당이나 신이 앉은 곳, 곧 당이나 신이 좌정한 곳의 땅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 가령 당이 빌레(너럭바위)에 좌정했다면 빌레당(빌렛당)이라 하고, 오당빌레에 좌정했다면 오당빌레당이라 한다. 비메니라 부르는 지경에 좌정한 당이면 비메닛당이라 하고, 황다리케에 좌정한 당이면 황다리케당이라 한다. 오름허리(오름 허리)에 좌정한 당이면 오름허릿당(오름허릿당)이라 한다. 눈에 선한 남(나무)이 서 있는 밭에 좌정한 당이면 남선밭당이라 한다.

또한 신목으로 삼은 나무 또는 당 주변에 선연하게 서 있는 나무 이름을 따서 붙이는 경우도 있다. 당에 폭낭(팽나무)이나 폭남(팽나무)이 있으면 폭낭당 또는 폭남당이라 하고, 소낭(소나무)이나 소남(소나무)이 있으면 소낭당 또는 소남당이라 한다. 마깨낭(마가목)이 있으면 마깨낭당이라 한다.

또한 바닷가에 있으면 개당 또는 갯당이라 하고, 바다 신을 모시는 당이면 해신당(海神堂)이라 하고, 용신(龍神)을 모신다는 데서 용당(龍堂) 또는 용신제당(龍神祭堂)이라 한다. 산신을 모시는 당이면 산신당(山神堂) 또는 산신단(山神壇)이라 한다.

당이 좌정한 곳이 마을 따위의 위쪽에 있으면 웃당이라 하고, 아래쪽에 있으면 알당이라 한다. 크기 상 크기도 하지만 계보 상 상위에 있는 당은 큰당이라 하고, 하위에 있는 당은 작은당이라 한다.

당이 들어선 밭은 당밭 또는 당밭이라 한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당을 당밭당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당이 들어섰기 때문에 당밭이라 한 것인데, 나중에는 그곳에 있는 당을 다시 당밭당이라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제주도 당(堂) 이름은 참 다양하게 불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당마다 직계는 두세 개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고, 많게는 대여섯 개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제주도 당 이름을 파악할 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르는지,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혹은 어떤 것을 초점에 두고서) 부르게 되었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3. 여러 당 이름

3.1 세밧당·세미하로산당·동회천 본향·동세밧당·동카름당

제주시 봉개동의 동회천동에 있는 본향을 세미하로산당이라 한다. 봉개동의 동회천에 있는 화천사라는 절 입구에 ‘세미’(세미에 물을 덧붙여 세미물이라고도 부름.)라 부르는 샘[泉]이 있다. 샘에 대응하는 옛말은 ‘섞’이고, 이에 대응하는 제주말은 ‘세미’이다. 그러니까 ‘세미’ 일대에 동네 또는 마을이 형성되었다는 데서 마을 이름도 ‘세미’라 불렀다.



동회천의 화천사 입구에서 솟아나고 있는 세미(세미물) 전경

‘세미(세미물)’ 동쪽, 동회천북지회관 북쪽 길가에 못(못밭물)이 있는데, 이 못 북쪽 숲에 당신인 하로산또가 좌정한 당이 있다. 이 당은 세미에 있는 당이라고 해서 ‘세밧당’으로 부르기도 했고, 하로산또라는 신이 좌정해 있는 당이라는 산로산당이 라고도 했다. 세미에 있는 하로산당이라 해서 세미하로산당이라고도 한다. 동회천의 본향이기 때문에 동회천 본향이라고도 부른다.

한로산또는 사냥 신의 하나로, 이 당의 본풀이를 보면, 한라산 테역장오리와 물장오리 등으로 돌아다니며 노루 사냥을 하다가, 버으내동산과 후승이빌레를 거쳐 동카름(동회천) 만년 폭낭 아래에 좌정한 신이라는 데서 붙인 것이다.

서회천에서 볼 때 동회천은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회천을 동카름 또는 동세미라고도 불렀다. 그래서 위 당을 동세밧당이라고도 부르고, 동카름당이라고도 불렀다. 동카름은 동쪽에 있는 가름(동네)을 뜻하는 제줏말이다.

3.2 남선밧당·근세 남선밧당·할망당·남선밧 할망당

제주시 봉개동의 서회천에 있는 당을 남선밧당 또는 근세 남선밧당이라 부른다. 서회천 복지회관의 동쪽에 있는 과수원 안에 있다. 큰 폭낭(팽나무)을 신목(神木)으로 의지해서 당이 들어섰다. 과수원으로 조성되기 전에는 폭낭이 선연하게 서 있어서 이 밭을 남선밧으로 불렀다. 남이 선 밧이라는 뜻이다. 남은 나무를 이르는 제줏말이고, 선은 서다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ㄴ이 덧붙은 말이고, 밧은 밭의 제줏말이다. 이 남선밧에 당이 들었기 때문에 남선밧당이라 부른 것이다.

이 당의 신은 남선밧 일뤼중저 서당국서 큰또부인과 아기무를 상무를 물비리 당비리 불러주던 한집이다. 큰또부인은 동회천 하로산또의 처신이기 때문에, 이 당을 할망당 또는 남선밧 할망당이라고도 부른다.

서회천의 옛 이름이 근세이기 때문에 근세 남선밧당이라고도 불렀다. 근세는 근세미에서 미가 생략된 말로, 근늘게(가늘게) 솟아나는 세미(샘)라는 데서 만들어진 말이다. 지금 이 당 일대는 비닐하우스로 된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다.



서회천의 남선밧당 근경과 원경

3.3 돛인머들당·축일당(丑日堂)·축일본향·할망당·축일할망당·돛인머들당·웃당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벵디못(금악리 마을회관 옆) 남동쪽, 검은오름(금오름) 남쪽의 돛인머들에 당이 있는데, 이 당을 돛인머들당이라 했다. 돛인머들에 있는 당이라는 데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요즘에는 돛인머들을 돛은머를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당 이름도 돛은머들당을 소리 나는 대로 써서 돛은머들당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당은 쉼날, 곧 축일(丑日)에 다니기 때문에 축일당(丑日堂) 또는 축일본향(丑日本郷)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당신도 축일한집(丑日--)이라고도 부른다. 이 당의 신은 정씨 할망(호근이머르 정 좌수의 따님애기 / 호근이머르 정 좌수 딸)이기 때문에 할망당이라고도 부르고, 축일 할망당이라고도 부른다.

지도방위상 이 당 서남쪽에 오일당(午日堂)이 있는데, 이 당을 알당이라 부르고, 축일할망당은 웃당이라고도 부른다. 이 웃당이 들어선 밭을 웃당밭이라 한다.

일제강점기에는 이 당 서쪽 일대를 함케라 부르고, 이 함케 일대에 동네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동네를 함켓동네라 불렀다. 그러나 한자로는 숨處洞(함처동)이라 표기했다. 그러나 이 동네는 제주4·3사건 때 폐동되었다. 지금은 이 동네 동쪽 사거리에 잃어버린 마을 푯돌이 세워져 있다.



금악리 돛인머들당

3.4 ㄹ당·오일당(午日堂)·오일(午日) 하르방당·하르방당·당동산당·알당

제주시 금악리 벵디못(금악리 마을회관 옆) 남동쪽, 검은오름(금오름) 남서쪽의 당동산에 있는 당을 오일(午日) 하르방당이라 한다. 이 당에서 모시는 신은 오일한집(午日--)을 모시기 때문에 오일당(午日堂)이라 하고, 이 오일한집은 육지서 들어온 최지국의 아들(산신)이기 때문에 하르방당이라고도 부른다.

이 당은 몰날) ㄹ날(午日)에 다니는 당이기 때문에 ㄹ당 또는 오일당(午日堂)이라고도 한다. 이 당이 좌정한 뒤에 이 당 일대의 동산을 당동산으로 불렀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 당을 당동산당이라고도 부른다.

이 당의 동북쪽에 있는 당을 옷당이라 하고, 이 당은 알당이라고도 부른다. 이 알당이 좌정한 밭을 알방앗이라 한다.



제주시 금악리 오일 하르방당 전경

3.5 큰당·할망당·축일당(丑日堂)·술일(戌日) 할망당·소왕물당·축일본향당 / 죽은당·하르방당·영감당·연뒋가름 영감당·술일당(戌日堂)·술일(戌日) 하르방당·소왕물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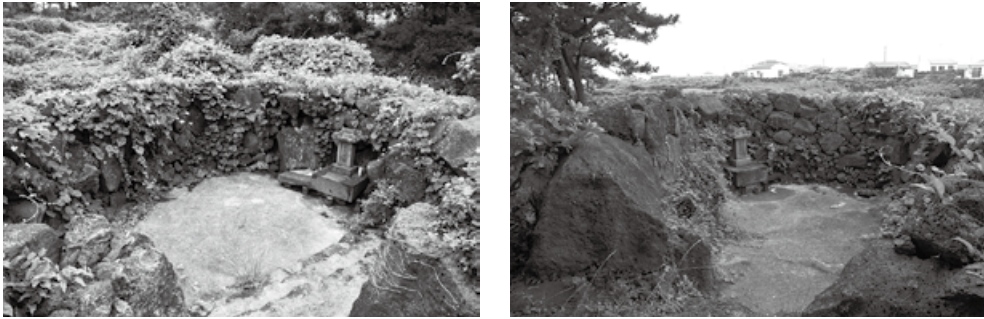
제주시 한림읍 금릉리에 있었던 소왕물 가까이에는 할망당과 하르방당이 있었다. 이 할망당은 쉼날인 축일(丑日)에 다녔기 때문에 축일당(丑日堂)이라 하고, 하르방당은 개날, 곧 술일(戌日)에 다녔기 때문에 술일당(戌日堂)이라 했다. 축일당은 할망당이기에 때문에 축일(丑日) 할망당이라 하고, 술일당은 하르방당이기에 때문에 술일(戌日) 하르방당이라고도 불렀다. 그러나 요즘에는 술일(戌日)에 다니는지 술일당(戌日堂)이라 하는 사람도 있다.

요즘에는 사람에 따라서 하르방당을 영감당으로도 부르는데, 읍진 당에 守監神位(영감신위)라 새긴 빗돌을 세웠기 때문이다. 또한 연뒋가름 영감당 또는 연뒋가름 술일 하르방당으로도 부르는데, 이 당 북쪽에 조선시대에 베랭잇개연대 또는 베랭이 연대라 부르는 연대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 이름에 근래에 와서 부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씨 할망을 당신으로 모시는 당이기 때문에 할망당이라 하고, 정씨 할망의 남편을 모시는 당이라는 데서 하르방당이라 했다. 할망당의 신은 버랭이 큰당한집이라 했기 때문에 큰당이라 하고, 하르방당은 죽은당이라 불렀다.

소왕물이라는 물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소왕물당이라고도 불렀으나, 지금 소왕물이 메워졌을 뿐만 아니라, 당도 금능리 복지회관 서남쪽에 조성된 능향원이라는 곳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소왕물당이라 부르기는 어렵다. 지금 금능리 복지회관 북쪽에 소왕물이 있었다.

능향원 안으로 들어가면 가운데에 포제단이 있고, 그 왼쪽에 할망당을 마련하고 오른쪽에 하르방당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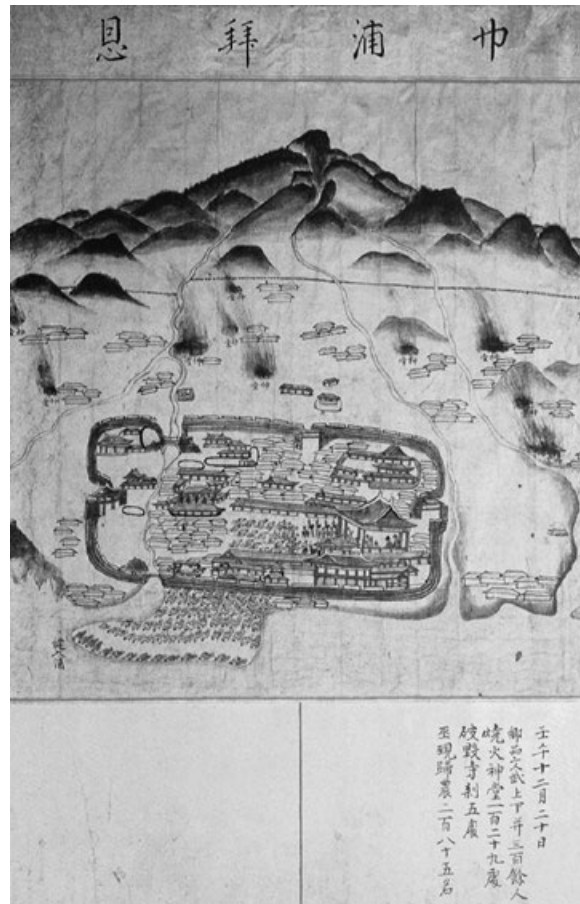
1980년대 중반에 능향원으로 옮겨서 설치된 할망당(왼쪽)과 하르방당(오른쪽) 전경

4. 당과 관련한 문화

40~5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제주 민속은 당(堂)과 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근래에는 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줄면서 거의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조선시대에 제주 풍습은 음사(淫祀)를 숭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유학자들은 당과 관련된 것을 음사(淫祀)나 음사(淫祠)라 하여 업신여기거나 훼철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형상 목사는 18세기 초반에 제주도에 있었던 신당 129곳을 불태워버리고 헐어버렸다. 당시 있었던 큰 절 다섯 곳도 훼철(毀撤)해 버렸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주 사람들에게는 「당 오백 절 오백」이라는 전설이 전하는데, 오백 개나 되는 당도 헐어버리고 오백 개나 되는 절도 헐어버렸다는 것이다. 이것을 실제로 오백 개를 헐어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그러니 많이 헐어버렸다는 데서 나온 전설이다.

이외에도 무속과 관련된 신화와 전설은 무수히 전하고 있다.



이형상의 『탐라순력도』에 들어있는 「건포배은(巾浦拜恩)」

신당 129곳과 사찰 5곳을 불태워 없애고, 농사를 짓도록 한 심방이 285명이라 하고, 향품직의 문과와 무과 선비 300여 명이 모여 임금의 은혜에 절하는 광경을 그린 그림이다.

이형상 목사가 떠나자 다시 무배(巫輩)가 생겨나고, 다시 신당이 세워졌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고, 미신(迷信)을 타파한다면서 여러 신당을 헐어버린 적도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 신당이 굳건히 남아서 오늘에 전하고 있으나, 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유교식 제사에는 원래 문전제와 조왕제(?)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도 일부 집안에서는 제사를 지내기 전에 문전제를 지내고 있다. 집안을 드나드는 곳에 좌정하여 집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지켜보는 문전신에게 의례를 지내는 것이다. 또 집안에 따라서 제사를 주관하는 여자가 지내는 제가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조왕제라 하기도 하고 고팡제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왕제도 아니고, 고팡제도 아닌, 제사를 주관하는 여자가 부엌이나 고팡 등에서 따로 한 위 또는 두 위에게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정통 유교식 제사와는 관련이 없는, 무속 또는 민속과 관련되어 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마무리

당 이름에는 제주 사람들의 사상과 사고가 옳곧게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때 음사(淫祠)·음사(淫祀)니 미신(迷信)이니 하면서 당과 관련된 것을 배척하려던 때가 있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선조들의 사상이나 사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엉뚱스럽게 전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2009)되어 있는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과 관련된 ‘칠머리’의 뜻에 대해서 “땅의 모양이 바닷가를 향하여 일곱 갈래로 돌출되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칠’은 ‘칠[葛]’을 뜻하는 말이고, ‘머리’는 ‘머리>머리[鬚]가 변하여 실현된 것이다. 그런데도 언어학적 인식도 없고 방언학적 인식도 없는 상태에서 억지 해석이 난무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제주도 당 이름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을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